



● 11월 12일(수) 15:00,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께
크리스마스 셔츠를 증정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셔츠 모금,
“대통령도 함께 합니다”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은 11월 12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결핵홍보대사인 선우용녀, 김창렬, 우주인 이소연 씨와 함께 청와대를 예방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께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증정식 후에 가진 환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결핵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결핵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쌀 증정은 1957년 12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오랜 외국생활로 크리스마스 쌀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 내외분께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한 후 이승만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 군장병, 각급학교,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크리스마스 쌀 모금운동이 확산되었다. 그 당시 결핵이 만연했던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크리스마스 쌀 모금은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금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11월~12월 중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관련부처장관, 광역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크리스마스 쌀 증정식이 정례화 되었고, 사회각계 인사들에 대한 쌀 증정 및 모금은 크리스마스 쌀 모금 캠페인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 쌀 모금운동



※ 11월 14일(금) 14:30 김성규 회장, 고계인 사무총장은 대법원을 방문, 이용훈 대법원장에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했다.

※ 11월 14일(금) 16: 30 김성규 회장, 고계인 사무총장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에 대해 알리고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했다.

※ 11월 28일(금) 11:00 김성규 회장, 고계인 사무총장은 가톨릭서울대교구를 방문, 정진석 추기경에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하고 성금을 전달받았다.

※ 11월 28일(금) 15:00 김성규 회장, 고계인 사무총장은 대법원을 방문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에 2008년도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했다.

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나
눔, 실천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전 유럽에서 만연되고 있
던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
여 민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이후 프랑스, 벨
기에 등 여러 유럽국가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쌀을 발
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에서 크리스마스 쌀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크리스마스 쌀 발행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미국은 덴마크에서 1904년 세계
최초로 쌀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본격적인 쌀
모금을 시작한 나라로 벌써 쌀 발행 100주년을
넘겼다.

캐나다는 올해로 쌀 발행 100주년을 맞이했다.
캐나다 폐협회는 “1908년부터 크리스마스 쌀은
캐나다인들이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돋고
있다”는 표어를 내걸고 100주년 쌀을 발행했다.
우리나라는 1932년 캐나다인 선교의사 셔우드
홀에 의해 처음 쌀이 발행되었으며, 그 이후 관
심 있는 인사들에 의해 소규모로 쌀 발행 및 모
금운동이 이어져 오다가 대한결핵협회 창립 당
시인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쌀 운
동이 실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❶ 12월 4일(목) 15:10 김성규 회장은 서울지부 문화식 지부장과 서울시를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에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하고 쌀 성금을 전달받았다.

❷ 12월 4일(목) 16:00 김성규 회장과 고개인 사무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하여 안병만 장관에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하고 성금을 전달받았다.

❸ ❹ 한편 12월 5일과 12일에는 각각 한나라당, 민주당을 방문하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하고 성금을 전달받았다.